

(공무원단기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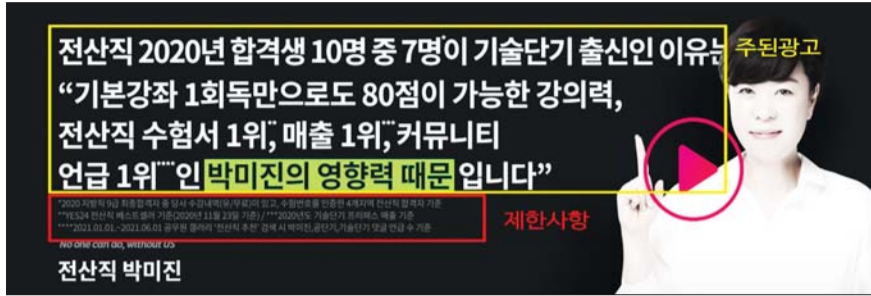
공단기 “80% 합격률·수강생 1위”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1.1억 과징금

공정위, 에스티유니타스 시정명령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에 제재 조치
합격률 1위 홍보했지만 실제와 달라
소비자 기만 광고... 공표명령도 부과

공무원 시험 대비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가 객관적 근거 없이 공무원시험 합격률을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유니타스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2021년 6월 7일~8월 30일까지 자사 누리집을 통해 공무원시험 합격률에 대해 광고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



공단기의 사회복지직 관련 홈페이지 광고물. /공정위

이후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광고에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해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공단기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합격생 10명 중 8명은 공단기 출신’이라는 광고를 게재했으나, 실제로는 최종합격자 중 공단기 유/무료 수강내역이 있고, 수험번호를 인증한 대구지역 사회복지직 합격자 기준으로 실제 합격률은 66.20%였다.

같은 기간 ‘수험생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을 광고하면서도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

과 유사한 색을 사용해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이 제한된 근거가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해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를 차지했다는 광고표현의 의미를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해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공급망 탄소감축 파트너십 선도 모델 발굴

산업부,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개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감축 지원사업을 벗어나, 산업 공급망으로 연결된 복수 기업들의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현하는 그간의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단일 기업이 아닌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군에 대해서도 지원하게 된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제품 여권(DPP), 배터리규정(EUBR) 등과 같이 공급망에 기반한 탄소 규제가 도입·적용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도 공급망 기반의 탄소 감축 지원을 절실히 필

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 수혜를 희망하는 탄소 다배출 업종 대기업 등은 복수의 협력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공급망 컨소시엄은 공정개선, 설비교체 등 탄소감축에 필요한 자금을 컨소시엄당 총사업비의 최대 40% 내에서 1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감찬 산업정책관은 “글로벌 산업경쟁이 개별 기업 간 대결을 벗어나 공급망 간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동 사업을 통해 공급망의 탄소산정·감축 등 우리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 상세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트럼프 관세 조치, 시나리오별 대응해야”

산업부, 美 관세 인상 영향 점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최근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통상·에너지 주요 행정조치에 대해 부내 모든 가능 수단을 동원해 시나리오별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 대상 관세 부과 조치와 그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부내 TF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미국 신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각종 행정조치를 빠르게 발표하고 있으며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해 이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앞서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는 10%),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정인교 본부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회의실에서 ‘미국 신(新)정부의 주요 행정조치 대응을 위한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미국의 관세 등 정책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관련 업계 우려와 건의사항을 청취해 함께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유사 상황에 놓인 주요국 동향을 파악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가능한 모든 협력 채널을 활용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친환경 섬유소재 개발에 352억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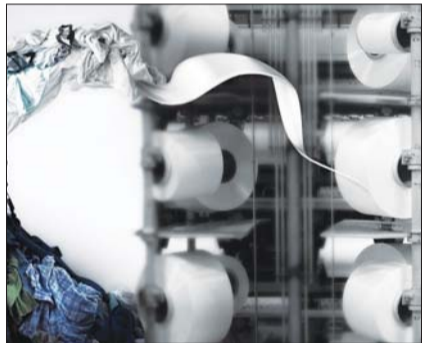
산업부, 리사이클 기술개발 착수
오는 12일 서울서 사업설명회 개최
참여 희망 기업·기관 27일까지 신청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섬유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폴리에스터 복합섬유의 F2F(Fiber To Fiber) 리사이클 핵심 기술개발사업’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섬유패션산업의 친환경 전환 흐름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나이키와 자라 등 글로벌 섬유 수요 기업들은 2030년부터 리사이클 섬유 등 친환경 섬유를 100% 사용하겠다고 선언했고, 유럽연합(EU) 등은 섬유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폐기되는 섬유·의류 중 가장 큰 비중(40~50%)을 차지하는 폴리에스터 복합소



효성티앤씨가 버려지는 의류 및 원단을 섬유로 리사이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효성티앤씨

재를 새로운 섬유소재로 재생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사업에는 올해 국비 40억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352억원(국비 299억원, 민자 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희망 기업과 기관은 2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오

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서울 남대문호텔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작년 8월 발표한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에서 ‘섬유패션산업의 친환경 전환 지원’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복합섬유 리사이클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순환경제 기조로 빠르게 재편 중인 글로벌 섬유패션 시장을 공략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미 착수한 ‘화학재생 그린섬유 개발(2022~2025년, 국비 148억원)’, ‘바이오매스 비건레더제조기술 개발(2024~2028년, 국비 286억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섬유 업계 친환경 전환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근로자가요제 왕중왕전 참가하세요”

근로복지공단, 28일까지 신청 접수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KBS와 공동 주최하는 ‘제46회 근로자가요제’를 역대 본선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왕중왕전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자가요제는 근로자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근로자문화예술제’의 한 분야로, 1985년 5월에 신설돼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근로자가요제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특별히 왕중왕전으로 진행된다.

왕중왕전은 1985년부터 2023년까지 본선에 진출한 수상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가요·팝송·성악·민요 등 장르에 제한이 없다. 또한, 창작

곡으로 출전하는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근로복지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본선 경연은 4월 11일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된다. 본선 무대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KBS 1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근로자문화예술제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KBS미디어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대환 기자

발달장애인 고용안정 정책자료 개발

고용개발원, ‘알기 쉬운 자료 3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자료’ 3종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발달장애인의 사회 진출 확대와 안정적인 직장생활 유지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직장 매너와 고객센터 ▲사이버 범죄 예방 안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총 3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

‘직장 매너와 고객센터’ 자료는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고객센터 역할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사례별 의사소통 방법, 고객 응대 요령, 직장 매너 등을 쉽게 설명한다.

‘사이버 범죄 예방 안내서’는 웹툰 형식으로 제작돼 발달장애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이버 범죄 사례와 해결 방안을 소개해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히도록 돕는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자료는 성희롱 유형별 사례, 피해 시 대응 절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 등을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기초지식을 함양해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자료는 주제 선정부터 최종 완성까지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의 자문,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검토 과정을 거쳐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